

4.13 총선 D-33

최규성 · 강동원, 더민주 2차 컷오프 결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반발 거세

최 의원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
강 의원 “민의 대변하는게 죄인가?”

해당지역 선거구에 큰 영향 미치나?

최 · 강 의원, 지역민심 지지 ‘탄탄’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우려”

최규성(김제완주), 강동원(남원순창)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차 현역의원 공천탈락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2차 컷오프 대상자를 5명을 확정했다.
탈락한 5명의 현역 의원은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재선),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재선),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초선), 강동원(초선), 최규성(3선) 의원 등이다.
이날 2차 컷오프 발표는 공천 배제 현역의원 의 이름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 공천(단수) 지역으로 발표하거나, 경선 후보 명단 발표를 통해 탈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질문에 답변드릴게요”

막말 피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호출되어 자신의 의견을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규성 · 강동원 의원 “이해할 수 없다... 반발 거세

도내 정가는 이날 발표가 나오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의외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전북 10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3명이 탈락, 당초 중앙당이 계획한 20% 불같이 보다 비중이 높았다.

또한 3선 이상은 최규성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돼 반발 파장이 크게 전해지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이번 공천 배제 방침에 대해 재심신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48시간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당초 도내 정가에서는 김춘진 의원과 지역구와 똑같은 3선 의원에게 경선 할 것이라던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어났다.

최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이유없이 컷오프하면 곤란하다.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제 원래 지역구인 김제 인구가 김춘진 의원 지역구인 부안보다 3만명이 많다. 이걸 경선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도 10일 당의 컷오프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이상기류가 전혀

없었던 2차 컷오프! 결국 이렇게 됐군요. 민심을 당신이 또 덮어버렸는데도 아당답게 민의를 대변하게 죄라니 참담할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실, 순창 남원 시민 여러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현역의원 탈락 오히려 득(毒)?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탈락에 따른 무소속 출마 등 해당지역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강동원 의원의 경우는 19대에서 3선이었던 이강래 전 의원을 이기고 국회에 입성, 지역민심이 탄탄하다.

게다가 최근 도내 한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그에게 경선을 통한 공천 탈락이라면 민심을 받아들이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유가 불충분한 컷오프는 오히려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등 풀어나가는 해법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충동이 재현될 수 있다

실제로 강동원 의원은 “친정인 민주당에 어렵게 복귀했지만 중앙당과 지역 기록관자들은 온갖 준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고당부로 판정했던 중앙당은 이제 최소한의 경선지역마저 박탈했다.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고 응수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암시된다. 남원순창 선거구에서 특별한 후보자가 거론되지 않는 만큼 강 의원의 우세가 점쳐진다.

최규성 의원의 경우도 지역 고정 지지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 역시 “김제 인구가 김춘진 의원 지역구인 부안보다 3만명이 많다. 이걸 경선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반발, 재충동이 예상되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강동원, 최규성 의원 모두 경쟁력이 있는 후보군이다. 무소속 출마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구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차라리 경선을 통해 배제

하는게 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천 탈락 이유 해석 부분

강동원 의원은 “컷오프 배경에는 과거 대선 조작 발언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 당시 “201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반면에 인재영입 인사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단수 결정된 박희승 예비후보(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는 문재인 전 대표의 10호 인재영입인사로서 정치적 도의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의 경우는 오픈포이머니 법제화에 앞장서는 등 물갈이론을 주장해온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혁신인파 정면 충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79명 의원들(전체 129명)의 서명을 받는 등 당원 누구나 나서는 원전국민경선을 주장, 주류 비주류 논란 중심에 섰었다. /신광영 기자

北, “남북경협 합의 전면 무효화할 것”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북 독자경제 조치에 반발해, 남북경협이나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또 담화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만큼, 북측 지역에 있는 우리 기관이나 기업의 자산들을 청산할 것이라며 “박근혜 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이 연속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합의를 모두 무효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개성공단 내 우리 기관의 사무소나 기업들의 공장 시설들을 북측 마음대로 처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청산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성공단 지역은 지난 2월11일 북한이 폐쇄할 때부터 북한 군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곳을 군사 지역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담화는 우리 정부의 단독제재에 대해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찬 이번 제재안은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주체단 통일탄 폭음에 완전히 혼이 나간 역적패당의 단발머리 발악이머 스스로 섰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정성명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담화는 또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지만 하면 일격에 불발정질 해버릴 수 있게 선제공격 방식으로 집합하고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패당은 더러운 숨통이 끊어지게 될 비참한 시각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또 다시 저속한 욕설로 비방하면서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있는 청와대 소굴에 들어버려 온갖 못된짓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만고파괴는 반드시 궤미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용주 기자

▶ 매일 INDEX

5면 전주공동체 ‘온두레’ 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2016년형 ‘온두레’ 사업이 본격화된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대상 공모 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류와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총 64건의 사업을 확정했다.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2016년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최동식, 이사 김규태, 김남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송항용, 신동선, 유석용, 이성광, 주동현, 한의성, 사외이사 김병윤, 심병연, 감사 조미희

NH 농협

농민과 도시민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